

2022학년도

제1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공개용)



■ 일 자 : 2023. 02. 02.(목) 오후 13시 30분

■ 장 소 : 인문캠퍼스 화상회의실/ 자연캠퍼스 대회의실
[화상회의]

결 재	간 사	의 장

명 지 대 학 교

2022학년도 제1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공개용)

■ 일 시 : 2023. 02. 02.(목) 13:30 ~ 16:42

■ 장 소 : 인문캠퍼스 화상회의실, 자연캠퍼스 대회의실[화상회의]

■ 참석평의원 : 이정현, 최현선, 김정현, 이상현, 김용달, 김수현, 이대욱,
최시온, 우성희, 이준용, 이순식 (이상 11명)

■ 불참평의원 : 유희석 (이상 1명)

■ 배 석 자 : ○○○○

■ 성 원 : 재적평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됨.

■ 안 건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폐합 추진에 대한 동의

■ 심의내용

- 의장 : 2022학년도 14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성원 보고 요청
- 간사: 재적평의원 12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 의장 : 간사님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음
- 간사 : (통폐합 추진에 관한 동의 내용의 안건 상정 관련하여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다. 이어서 통폐합 신청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1. 주요 진행 경과
 2. 신청서 주요 내용
 - 명지대학교 비전 및 발전방향
 - 특성화 계획
 - 통폐합 후 모집단위 및 정원
- 간사 : 세 번째 대학평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신청서 내용보다는 통합의 동의에 대해 살펴봐주시고 거시적으로 봐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안건 설명을 마칠것음
- 의장 : 오늘 ○○○께서도 참석해 주셨음. 총장님의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간사님께서 통합 추진 사항의 경과 보고와 신청서 주요내용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먼저 ○○○께서 간사님 설명에 이어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 총장님 요청에 응답해서 대학평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간사님께서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평의원님들께서도 구성원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함. 총장님께서 다시 대학평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신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음. 명지학원의 회생 문제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음. 또 최근 정부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통폐합을 통해 앞으로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통폐합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작년 12월 28일 양 대학의 통폐합 신청서와 부가적인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부가적인 서류 중 하나가 대학 구성원들의 단체 또는 조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고 그 동안 동문회나 학생회, 교수 단체들의 도움으로 제출을 하였음. 대학평의원회가 최고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서는 평의원회에서 통폐합 신청에 관한 절차를 꼭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재심의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12월 29일 평의원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새롭게 평의원이 되신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음.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에 걸쳐 전체 구성원에 대한 통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고, 직원 95%, 교원 85%가 동의를 해주셨음. 며칠 전 교육부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회의를 했었음. 통합을 하는 대학 중에 이렇게 높은 동의율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얘기하였으며, 타 대학에 비해 교원이나 직원이나 약 15%에서 20% 이상으로 동의율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통합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음. 통합에서의 관심사는 통합 이후 학사 구조 모습인데 전체 구성원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본부와 컨설팅 업체는 나름대로 통합 명지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통합안을 만든 것이고, 40여 차례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초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해서 최종안은 변화가 많았음. 교육부에서는 현재 통합안에 대해 올 초부터 검토를 시작하였고 특별히 수정사항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한 번 수정사항이 나온 것은 학생 수 계산을 하는데 소수점처리에 관한 것이었음. 현재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의 통합안은 작년 여름에 제출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교육부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수정 사항이 많았다고 함. 수원대는 구성원들의 동의 과정도 생략하고 일단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동의를 하느라고 생을 많이 했었음. 현재까지 우리 대학은 큰 수정이나 보안 요구 사항은 없었고, 설립심사위원회가 2월 중에 진행될 것임. 내년 3월에 통합 명지대가 개교하는 것이 목표이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며 여기 평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함.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지만, 교무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통합 신청서 접수를 다 한 상태지만 총장님과 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통합 신청안이 부결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림. 오늘은 통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질의를 받겠음

- 의장 : 평의원님들 어떤 질문이라도 기탄없이 해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이번 회의 참석 전에 지난 11차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11차 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보니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신청서에서 학과 통합이나 폐과에 대한 반대가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음.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2월 이후 한달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 해소가 되었고 해소를 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음

- ○○○○ : 원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초안에는 폐과되는 학과들이 꽤 있었으나 구성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고 남은 이슈가 철학과와 바둑학과 두 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함. 12월 28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현재까지 변화나 본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음. 예를 들어 수학과, 물리학과, 사학과 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조정이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남은 철학과와 바둑학과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에 변화되는 사항은 없음. 여기가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조선일보에 열흘 전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음. 기사에 바둑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났으며 향후 20년 안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원들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가 바둑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나왔음.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에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함. 한번 만들어진 과가 영원할 수는 없고 대학교도 문을 닫는 상황에서 향후 수요 등을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부에서도 가장 반갑게 생각했던 것이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고 통합 후 인원을 30명에서 80명으로 증대하는 것과 통합 명지대에서 AI 관련 학과나 빅데이터 학과를 신설 또는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였고 통합을 빨리 해야 그런 인원들이 사회에 1년이라도 빨리 배출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평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은 12월 28일 이후에는 현재 제출된 학사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는 상태임
- ○○○○ 평의원 : 평의원님들 말씀 다 감사드리고 또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있지만, 한 달동안 뭘 하셨냐고 여쭙어봤는데 ○○○○께서 교육부를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음. 저희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안건이 여러 번 올라왔을 때는 안건의 변화가 있거나 한달의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또는 폐과되는 학과의 교수님들을 위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셨는가임. 교육부를 다녀와서 가서 말씀을 나누고 오셨으니 바둑학과와 철학과는 잊어도 되는가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 : 12월 28일 이후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것임. 작년 12월부터 저는 바둑학과를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철학과를 접촉을 많이 하셨음. 제가 바둑학과를 접촉을 했으니 바둑학과에 대해서는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음. 바둑학과 교수님 세 분과는 12월 중순쯤에 간담회를 진행했고 3~4가지의 제안을 드렸었음. 바둑학과가 바둑기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아니며 바둑 관련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임. 통합 후에 체육학부 스포츠산업 전공 안에 바둑 트랙을 만드는 것을 제안드렸음. 우리나라에 바둑 고등학교가 있고 바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황을 하고 있으니 바둑 트랙을 만들어서 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바둑 관련 산업이나 바둑TV나 인터넷 방송 등으로 취업시키는 것으로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학교에서 현재 바둑학과 수준으로 정원을 배정해드리겠다 제안을 드렸었음. 두 번 째로 체육학부에 특기생 제도가 있고

바둑학과도 특기생을 뽑고 있음. 체육학부로 적을 옮기시더라도 특기생 뽑는 것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음. 세 번 째로 바둑학과에 중국 유학생들이 바둑관련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유학을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외국인 전용학과로 글로벌 바둑학과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제안을 드렸으나 모든 제안들을 다 거부하셨음. 학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바둑학과라는 독립된 학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둑학과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 12월 중순에 제안을 드렸으나 거부를 하셔서 최종 학사구조 개편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음. 철학과 관련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바둑학과만 말씀을 드림

- 의장 : 다른 평의원님들 질문 있으신지 확인함
- ○○○ 평의원 : 통합 진행에 ○○○ 대표자로서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 대표자들이 모인 ○○○에서 평의원회 안건에 대해 질문안을 수립해왔음. 질문안을 메일로 전달드렸고 프린트해서 평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함
- 의장 : ○○○ 평의원님께서서는 프린트가 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프린트가 되는 동안 다른 평의원님들 질문이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현재 철학과와 바둑학과를 제외하고 다른 학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과는 응용통계학과로 빠지면서 살아나는 과정들의 변화를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함. 수학과를 예를 들면 수학과가 응용통계학과로 바뀌면서 살아났다는 걸 학교 측으로부터 따로 전달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교수님들이나 학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교수님들께도 내용이 잘 전달이 된 것인지 학교 본부 측에서만 알고있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음
- ○○○ : 물리학과도 같은 경우이므로 물리학과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음. 물리학과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를 했고 그 결과 100% 만족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융합에너지 학과로 되면서 교수님들께서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음. 교수님들께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도 되겠는지 문의드렸고 동의해주셔서 물리학과 학생들에게도 전달을 하였음. 이 후 새로운 질의나 간담회 요청 등은 받은 바는 없음. 수학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임. 수학과 교수님들과도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응용통계학과로 가시는 것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의장 : 지난 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예산 관련한 내용이었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평의원회 안건과는 다름. 작년 12월 평의원회 이후 오늘 처음 오시는 평의원님들이 계심. 평의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이후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지난 두 번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짐작은 하였고 또 확인을 하였음. ○○○께서는 구성원들의 동의율을 95%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록 내용에는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물어보는 형식이나 절차나 기타 등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도 있음. 그런데 95%의 구성원들이 평의원님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직원이나 교수님들이 그 정도 생각을 안하고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임. 그렇다면 95%, 85%의 동의율과 평의원회에서 부결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면 서로 원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록에 나와있는 내용인 구성원들에 대한 동의에 대한 투표 방식이나 질문 형식, 기타 등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투표하시는 분들은 다 인지를 하셨다고 생각함. 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손을 들고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인정해준다면 평의원회가 어떻게 조율을 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안과 학교의 안에 가장 가까운 안을 낼 것인지를 협의해야 문제가 풀릴 것임. 이 갭을 줄이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임. 과연 의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 의장 :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음.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지금까지의 회의의 진행은 오늘 안건에 대해 지난 12월 회의 내용과 한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한 후 오늘 회의 소집 요청에 대해 평의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논의한 다음에 동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을 것임. 지금 이 순간에는 회의 개최 요청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오신 ○○○께 질의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임. 따라서 의장에게 주시는 질문은 나중에 처리를 하겠음
- ○○○ 평의원 : 제가 의장님께 여쭙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전 회의에서는 평의원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미루어 여쭙본 것이고 이제는 학교 대표라고 생각을 해서 여쭙본 것임. 똑같은 문제를 ○○○께도 여쭙보고 싶음. 평의원회 측의 의견과 학교를 대표하시는 ○○○의 의견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음.
- ○○○ : 지난 11차, 12차 평의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어보았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퇴장한 이후 회의 진행하신 내용을 보니,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대학 통합 신청서에 동의를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학사구조개편안의 내용까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까지 왔다고 판단함. 지금 구성원 단체의 대표분들이 계신데, 구성원 단체 중에 하나는 조건부 동의서를 내신 곳도 있음. 지난 회의록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학사 구조 개편안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써주셔서 조건부로 동의안을 내주신 단체도 한 군데 있었음. 오늘은 제가 퇴장한 이후에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 ○○○ 평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 아까 ○○○ 평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복사되어서 자연 캠퍼스에서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함. ○○○ 평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합 진행 원칙 3가지임. 첫 번째는 이런 사태를 유발하게 만든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폐합 진행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어야 함. 세 번째는 통합 진행에서 학우분들의 피해가 완충이 되고 보상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행에 대한 약속서 작성까지 원칙으로 삼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질문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명지학원의 책임 부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음. 평의회 안건 자체가 통합 동의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야하므로 그 전에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결정을 하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임.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가 통합을 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명지학원 법인의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함. 진행과정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결국 책임을 져야하는 명지학원에서는 어떤 고통을 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을 질 것인지 여쭙보고 싶음. 두 번째로 ○○○께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음.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고지해도 괜찮은지 여쭙보고 싶음

- ○○○ : 정확히 말씀 드리겠음. 2024년 3월 1일 통합한 학교를 개교하고 신입생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 평의원 : 그렇다면 내년 3월로 목표하고 계시다고 말을 하겠음. 두 번째는 통합 과정에서 의결구조가 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명지대 전체 구성원 중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 통합추진위원회 기구내 41명의 위원 중 2명만이 학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 싶음. 그리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이 많은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질문의 답을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공문으로 드리거나 추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음. 앞서 질문드린 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명지학원의 책임에 대해서고 다음으로는 통폐합 과정의 의결 구조에 학생 위원 비중이 적다는 것인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일단 명지학원의 책임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은 없을 것임. 이 내용은 법인에 제가 전달을 하겠음. 통합추진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인가가 나서 설립이 확정되면 설립추진위원회 같은 이름으로 새로 출범이 될 것이고 그 전에도 통합추진위원회는 학사 구조에 대한 내용이나 학과 이동에 따른 공간 문제 등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함. 통추위가 열릴 시 법인 분들도 다 참석을 하시므로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학생 위원 인원 문제는 교육부에서 학교의 모든 위원회에서 학생 위원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음. 통추위 뿐만 아니라 이후 양교의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학생 위원을 강화할 수 있는지는 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음
- 의장 : 다른 평의원님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까 처음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통합안의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었고 부결의 큰 이유였던 폐과 대상이 되는 두 과에 대한 학교의 다른 조치는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지 질문드리겠음

- ○○○ : 현재까지 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교육부에 제출한 학사 구조 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음. 이것은 첫 번째 교육부나 교육부의 설립심사위원회의 검토 중에 수정이나 보완 요청이 오거나 두 번째 교육부의 규제 완화로 통폐합 관련한 규제 개선 사항이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인해 변경이 되는 경우임. 여기에 따르면 교지 확보율이 올라가고, 기존 공대는 19제곱미터 건축대는 20제곱미터로 교사 면적이 달랐는데 그것이 인문대만 10으로 하고 나머지는 14제곱미터로 통일이 됨.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 교사가 여유가 있게되고, 전문대에서 4년제로 통폐합을 할 때 전문대 인원을 4년제 학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바뀌게 됨. 이 경우 최대 약 200명 정도 정원이 늘 것으로 예상함
- ○○○ 평의원 :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음. 평의원회에서 회의를 한 이후 조건부 통과안으로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변수들이 생겨서 교육부가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원도 변경될 수도 있고 학사 구조에 개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음. ○○○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사 구조 개편이 발생하게 될 경우 부결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일부 고려가 가능한가임. 포인트는 부결된 사항을 평의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밖에서 보기에 우스운 모양임. 똑같은 안을 부결했다가 똑같은 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정부 위원회를 다녀왔지만 이런 경우는 평생 본 적이 없음. 그러니 대의명분을 주셔야 됨. 조건부를 다는 것들에 대해 학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전에 소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 ○○○으로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통합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던 부분에 불만이 있으셔서,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 동안 미흡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해서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정원과 학사 문제 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평의원 : 앞서 평의원님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실제적인 것을 여쭙보고 싶음. 2024년 통합을 할 때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음. 원래는 2025년 통합을 목표로 하다가 통합을 빨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음. 2024년 통합을 위해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발생하는 비용이 어마어마 할 것으로 예상됨. 어떤 안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음
- ○○○ :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임.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평의원 : 통합 자금에 대해서 학생들도 우려를 하고 있음. 비용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등록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음
- ○○○ : 현재 등록금 인상은 고려해 본 적도 없음. 이번에 동아대가 4% 정

도 인상을 했지만, 등록금 인상은 국가 장학금과 결부가 되어있음. 등록금을 1원이라도 인상하게 되면 국가 장학금이 나오지 않기에 학교들이 13년 동안 등록금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의장 : 마지막으로 다른 평의원님 질문 있으신지 확인함
- ○○○ 평의원 : 통합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맞춰지는지를 질문함. 비용에 대해 미리 산정하고 있는게 있으신지 질문함
- ○○○ : 통합 비용은 변수들이 많아서 삼일회계법인에 따로 통합 비용을 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임
- 의장 : ○○○ 평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것인지 질문함
- ○○○ 평의원 : 학생 대표로서 저의 입장으로는 후조치 계획이 완전히 가시화된 다음에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대표로 통합에 동의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신청서 안에 폐지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가 간략하게 나와있긴 하지만 문서화되서 학생들의 피해가 완충이 되고 보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음
- ○○○ : 기존 통폐합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폐과는 종종 있었음. 제가 알기로 교육법상 어떤 학생이 A과로 입학하면 중간에 A과가 폐과가 되더라도 A과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수강신청이나 A과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책무임. 통폐합이 되면서 전문대 학생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폐과가 확정되게 되면, 학칙 개정을 통해 같은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함.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칙에도 들어갈 것이므로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임.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얘기지만 학습권에 대한 것이라면 확실하게 보호가 될 것임
- 간사 : 신청서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담겨있지 않음. 각 대학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출한다면 시간 내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것임.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을 때 동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통합 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음. 동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풀어가면서 만들어나가는 과정임. 완성이 된 것을 보고 동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통합 학교가 출범을 했다고 생각하면 됨. 타 대학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담아내다보니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지난 회의록에도 있듯 통합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심. 다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학사 구조개편이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많으셔서 지금까지 왔다고 봄. 11차 평의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심의였고, 12차 평의원회는 재심의를 가긴 했으나 타 대학에서는 추진에 대한 동의만 물었지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음. 짧은 시간에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평의원회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 가급적이

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고려를 해주시고, 다만 그 것이 미덥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평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 평의원 : ○○○께 부분적으로 좀 더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등심 위 때에 공간활용위원회에 학생 위원 위촉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음. 전달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음
- 간사 :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올라올 때마다 보고드리는데 것은 아니고 ○○○에서도 올라온 건이 있어 함께 검토하고 있음. 요구사항을 모아서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보고를 할 것임
- 의장 : ○○○ 평의원님의 질문은 오늘 안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것인지를 질문함
- ○○○ 평의원 :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학과 배정을 하는 공간활용위원회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학생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 사안을 ○○○께서도 알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의장 : ○○○ 입장에서는 현안일 수 있겠으나 오늘 안건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음. 지금 절차 진행 중이시라고 말씀하시니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음. 다른 평의원님들 질문 있으신지 질문함.
- ○○○ 평의원 : 작년 12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이후 12월 28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대학평의원회가 열렸는데, 이미 부결된 사안에 대해 이후 회의가 없이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었음. 이번 회의도 딱히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동의를 신청서 제출 이후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사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신청서에 주요 내용에 담겨있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물었던 것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 기관으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신청서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음. 그래서 제출은 하였지만 총장님이나 대학 본부에서는 구성원들의 통합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고 또 평의원회가 심의기관으로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부결을 했다는 것이 통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총장님께서 재심 의결을 하셨음. 재심을 요청하는 중간 과정에서 제출을 하였고 제출 일정 전에 일정을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구성원의 성원이 늦게 돼서 일자가 겹치게 되었음. 그래서 신청서 재심으로 안건을 하기는 어렵고, 안건을 바꿔서 신청서 검토가 아니라 추진에 대한 심의로 변경됨. 신청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적시한 것처럼 평의원회 동의 여부가 통합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뤄졌으면 하는 것이 총장님 의견이시고 오늘 또 열리게 된 것이므로 평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기를 바램
- ○○○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 평의원님께서 안건의 변동이 없는데 예전 평의회 의결을 뒤집는 것은 모양이 우습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음.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음. 이 때까지 교육부에서 통폐합 신청을 받았을 때 모든 대학에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없이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함. 신청서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통폐합에 평의원회의 동의는 같이 첨부되어 진행이 되었다고 함. ○○○ 평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교가 양자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평의원회 의결도 못 받고 제출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에 이런 우려도 있어 힘드시겠지만, 통합은 진행을 하고 또 꼭 통합은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평의원회에서 평의원들께서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저는 평의원님들이 사익을 추구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교 측에서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음.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부결되었고 12월 29일 재심의에서 심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폐과되는 2학과가 있음. 비록 초안에 비하면 폐과가 많이 줄었음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캠퍼스의 1과, 인문캠퍼스의 1과가 폐과가 됨. 성경책에 길 읽은 한 마리의 양 비유로 갈 것도 없이 학생회와 교수협의회 그리고 직원노조 모두 2과의 미래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구성원들이 불안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지난 한달 동안 구체적인 진전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결국 다시 12월 29일 회의를 우리가 한달하고도 2-3일이 지나고 나서도 어떤 진전된 의사결정을 해야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것임. ○○○께서 정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고 12월 29일에도 그 말씀을 하셨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에 상정했던 정원안보다 증원될 상황이 발생할 시 바둑학과와 철학과의 폐과 철회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걸 학교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2과를 위로해 주시면 여기 계신 평의원님들이 훨씬 더 마음의 짐을 줄일 수 있음. 또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구성원분들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인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총장님 이하 학교측이 정원증가 발생 시 양 과의 폐과 철회를 적극적으로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는 선언을 하실 수 있는지를 총장님과 학교 측에 건의를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아까 ○○○ 평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함. 최우선적으로 철회를 고려한다는 제가 총장님과 의논을 하고 답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의논을 하겠음. 그러나 지금 저에게 바로 답을 달라고 하시면 저는 최우선적으로 폐과를 철회한다고 답을 드릴 수는 없음. ○○○ 평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던대로 2과의 문제를 포함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지 않게 증원된 정원 배정문제 등은 2과를 포함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음. 폐과를 취소하겠다는가 최우선적으로 폐과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제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의논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함
- ○○○ 평의원 : 한 번 고민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달을 기다렸는데 지금 몇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음. 포인트는 이것임. 대의명분을 주셔야 평의원님들도 캠퍼스에 나가서 교수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보여

줄 수 있음. 아무 것도 없이 똑같은 안을 통과하라고 하면 평의원님들도 곤란함.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하시면 의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함

- ○○○ :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나 동의서에 어떤 부분은 조건부로 코멘트로 해주시거나, 통합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넣어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교내에서도 한 단체는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음. 그렇게라도 대학평의원회에서 동의서를 교육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총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시는 것임.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임. 정원이 증원되서 다시 논의를 했을 때 바둑학과와 철학과도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음
- ○○○ 평의원 : 지금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의 스탠스가 대학 스스로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자연과 인문에서 하나씩 폐과를 하시는 것 같음.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딘가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있으시고 그것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나 잘 고려를 해보셔야 함.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임. 교육부의 위원회에서 명지대학교의 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통과를 위해서는 평의원회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희생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것을 버티기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희생할 준비를 해주시고 제스처를 취해달라는 것임. 어떤 확답을 바라는 것이 아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좋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도 드리겠음. 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있으나 동일한 사안을 아무 조건이 바뀐 것 없이 통과시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께서 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쨌게든 통과를 시키시기 위해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 ○○○ : 아직 ○○○에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총장님과 지금 의논을 해서 답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를 의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음. 동의서에 조건을 붙여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함
- 의장 :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미 2번의 회의에서 평의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음. 한번은 신청서의 동의 여부를 묻고 표결까지 갔지만 부결된 적이 있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표결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상정이 되지 않았음. 오늘 ○○○과 평의원님들이 Q&A를 진행하면서 나온 또 하나의 방법은 ○○○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단체에서 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있음. 동의의 방식과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퇴장하시고 나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지난 번과 같이 하게 될 것임. 그리고 만약 오늘 의결을 하자고 결정이 되면 의결의 내용이 동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조건부라면 조건에 어떤 내용을 붙일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임. 조건부 동의에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2과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학교측에서 공식화된 의견을 표명하기 전까지 표결을 미루거나 그때에 정식으로 발효되는 조건부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음. 오늘 ○○○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오신게 아니고 총장님을 대리해서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얘기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음. 예를 들면 ○○○으로서 서너가지의 옵션 중에 어떤 것이 최우선이고 어떤 것을 ○○○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 : 물론 학교에서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통합에 동의하는 의결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일부 타대학의 경우처럼 조건을 붙여서라도 큰 틀에서 통합에는 동의하는 내용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음
- 의장 : ○○○ 의견 감사함. 평의원님들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물어봄
- 평의원들 : 추가 질문이 없다는 의견을 밝힘
- 의장 : ○○○ 오늘 감사드림. 긴 시간 회의를 하였으므로 잠시 휴식 후 속개하겠음
- (○○○ 퇴장)
- (회의 정회)
- 의장 :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음. 지난 회의록을 새로운 평의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숙지를 해서 오늘 회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음. 오늘 회의의 배경설명과 상황에 대해 들으셨고, 지난 12월 29일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음. ○○○이 퇴장을 하시고 학교측의 동의 요청에 대해 안건 상정을 할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먼저 있었고 찬반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정 여부를 표결하였으나 안건 상정이 되지 못했음. 오늘도 평의원님들께서 2시간 가까이 들으셨고, 아건 상정에 대한 동의 제청 이후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면 표결 절차로 들어가게 됨. 그 다음에는 동의를 절차, 방법 그리고 동이가 전폭적인 동의인지 조건부 동의인지에 대해 평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동의 요청과 동의 제청등이 이어지면서 각각에 대해 표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임. 지금부터는 학교 측이 요청한 통합 추진에 대한 동의,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번 제출된 통합신청서에 담긴 통폐합 계획안에 대한 추진임. 이미 제출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것이냐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보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안건 상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람.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는 의견, 반대하시는 의견, 수정 의견, 또는 안건안을 상정한다는 제안이나 그에 따른 동의제청 등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아까 ○○○ 계실 때도 ○○○ 평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내용인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2과의 폐과에 대한 분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임. 저는 통합안은 찬성하고 단 2과에 대한 문제를 학교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문구를 넣어 조건을 달아서 이 안을 통과시키면 큰 산을 넘지 않을까 생각함
- ○○○ 평의원 : 저도 동의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지대의 구성원의 한명

으로 학교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단지 행정에서 보여준 무능함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음.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음. 한 가지 걱정은 정부 부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건부 동의를 강하게 달거나 지저분하게 달 경우 동의안이 무색할 정도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 을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됨. 그래서 동의안은 가급적 간단한 것으로 동의라는 표현을 써주고 조건에 대한 부가 사항은 별지로 따로 처리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 평의원 : 두 평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작년과 올해 계속 평의원회에 있는 입장으로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함. 12월 29일 이 안건 미심의 사유가 12월 16일 이후 변경이 되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음. 오늘 말씀하신대로 과연 우리가 재심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조건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 평의원님 말씀대로 조건부의 조건이 너무 디테일하거나 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정원이 증원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합 비용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움. 폐과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문제지만 통합 비용이 그대로 떠넘겨진다면 향후 약 5년 정도는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 그리고 삼일에서 추계한 금액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도 됨. 이것이 구성원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음. 조합 차원에서도 직원으로 행정을 하니 우려를 표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학교의 회생과 통합에 반대되는 것처럼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상황임. 구성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기에 평의원회에서 당연히 동의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가느냐 그리고 정원 증원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분, 비용이 구성원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형식이거나 평의회 결의문 형식으로 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 평의원 : ○○○ 평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별지 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평의원 : 동의를 하되 조건부 동의로 하는 것은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측에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짧게 두 줄 정도만 남겨둔 상황에서 나머지 사항은 통과를 시키는 방식임. 첫 번째 조건부 동의 안에 동의는 하지만 차후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2줄 정도 남기는 방식임. 두 번째는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통과시키고 난 후, 학교 측에 이 안의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하면서 다른 안건으로 만드는 것임. 그리고 다른 안건으로 만든 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이 별지화하는 방식임. 동일한 사항으로 상정해서 별지를 만들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만, 완전히 분리시키면 관료들이나 정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을 다시 찾아보지 않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함

- ○○○○ 평의원 : 이해했음. 별지 방식은 두 개의 안건으로 분리한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 안건으로는 조건을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는 것인 것 같음. 첫 번째 안건도 동의가 아니라 조건부 동의라고 써서 표현하는 것인지 질문함
- ○○○○ 평의원 : 맞음. 만약 동의로만 표현하면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정당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함으로 하고 ‘단지’라고 해서 부가 사항을 간략하게 남김. ‘통합 추진 시 어떤 사항을 좀 더 적절한 의사소통할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 정도로 통합하면서 의사소통을 더 잘 하는 정도로만 간곡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평의원 : ○○○○ 평의원님 답변은 잘 이해했음. 저는 동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음.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철학과와 바독학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목적하는 바인데 동의를 해주는 것이 그것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함.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해주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평의원 : 저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함. 저희가 그 의견을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음
- 의장 : 지금까지 네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안건을 상정을 전제로 하고 동의를 하되, 동의의 방식 중 하나인 조건부 동의의 세부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내용임.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섞여 있는데, 오늘 안건을 상정하는지가 먼저 전제가 되어 동의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발의를 해주시고 동의 제청해주시고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여야 함. 말씀해 주신 평의원님들 중에서 상정에 대해 제안을 해주시고 동의 제청을 해주시기를 바람. 지난 번 회의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음. 그래서 지난 번에는 상정 자체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였음. 지난 번 회의를 감안해서 저는 오늘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비밀투표로 하고 결과를 보고 상정이 되면 다시 동의와 비동의를 투표한 후에 조건과 분야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음. 오늘 상정에 대해 제안 요청해 주시고 동의와 제청을 해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안건 상정을 제안드립니다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함
- 의장 : 그러면 안에 대해 양쪽 캠퍼스에서 투표 용지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거수로 투표하는 것을 제안함
- 의장 : 비밀투표로 진행을 해야 함
- ○○○○ 평의원 : 백지에 o,x로 투표하는 것을 제안함
- 의장 : 백지에 o,x로 투표를 진행하겠음. 용인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과 ○

○○ 평의원님이 확인해서 결과를 저에게 전달을 하면 양 캠퍼스를 합산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음

- ○○○ 평의원 : 의사 발언이 가능한지 질문함
- 의장 : 가능함
- ○○○ 평의원 : 현재 오늘 안건 상정 여부를 투표중이나, 지난 번 회의는 몇 분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그 때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대표자분들이 바뀌는 시기에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버리면 차기 대표자분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 안건 자체를 올리지 않았던 것임. 오늘 평의원회의 구성이 바뀌게 되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음. 지금 교육부에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의에 대한 협의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함.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간의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학교 측에 제안했던 내용도 있는 상태고 그 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투표는 다음 날짜를 잡아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드림
- 의장 : 오늘 안건 상정에 대한 제안 발언과 동의 제청이 되었으나 ○○○ 평의원님께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음. 오늘 안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고 공론화하기 위해 충분히 발언해 주셔도 좋음. 아직 투표가 종결되지 않았으니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음. 반대 의견이나 추가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 ○○○ 평의원 : ○○○ 평의원님 말씀 잘 들었음. 통폐합 과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산하의 대학설립위원회로 직제가 바뀌었지만 이전 몇몇 대학을 조사해 보았더니 통상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위원회가 개최가 됨. 보완 의견이나 반려 의견이 나와서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음. 우리가 2024년에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 시간을 놓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 학교 측에서도 2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수원대와 같이 올려서 심사를 받으려 할 것이고 거기서 변동이 생긴다면 3월 정도에는 열어야 함. 늦어도 4월까지야 나와야 5월 대교협에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렇기에 2024년 통합을 목표로 하고 2월에 올라가야 한다면 물리적인 시간은 1월 중에 끝났거나 오늘 중으로 끝나야 할 것임
- 의장 : 평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함.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음
- (평의원들 표결)
- 의장 : 표결을 종료하겠음
- (의장과 감사 개표)
- 의장 : 양 캠퍼스의 투표 용지를 확인하였음. 총 11분이 투표를 하셔서 오늘 안건 상정에 대해 찬성하신 분이 10분 반대하신 분이 1분 이렇게 오늘 안건이 상정되었음. 이제 안건 처리의 내용으로 주제가 바뀌어야 함. 아까 ○○○ 평의원님, ○○○ 평의원님, ○○○ 평의원님, ○○○ 평의원님 네 분이 대부분 조건부 동의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음. 다만 별지 등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고 논의의 여지가 있음. 여러 의견을 피력하실

분들은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현재 동의와 비동의를 투표할 수 있고 아니면 조건부 동의 자체를 안건으로 올려서 찬반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음

- ○○○ 평의원 : 제가 추가 발언을 드리면 지금 안건 상정은 세가지 경우가 있음. 첫 번째 동의와 비동의로 표결을 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동의와 비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와 별지, 세 번째는 동의, 비동의, 별지 동의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음
- 의장 : 방식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함. 한 장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별지는 정말 다른 종으로 작성하는 것임. 그러니까 조건부 중에서도 조건의 방식이 아니라 같은 페이지 내의 조건인지 별지의 조건인지가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번거롭더라도 동의와 비동의를 논의하고 이후에 동의의 방식을 묻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음. 평의원님들 이견이 있으거나 다른 관점의 논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조건부 동의의 조건 내용이 있어야 동의와 비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 평의원 : 제 생각에는 동의와 비동의를 먼저 선택하고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사안이 복잡하니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것을 제안드림
- 의장 : 처음 말씀해 주신 평의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조건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회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음. 우선 동의와 비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더 큰 선택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 내용과 방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의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음
- ○○○ 평의원 : 제 입장에서는 조건에 대해 미리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동의와 비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 한 다음 만약 조건부 동의가 나올 시 다음 평의원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서 각 단체의 요구 조건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른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음
- 의장 : ○○○ 평의원님의 의견은 조건부 동의가 확정되면 오늘 조건을 확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조직 구성원들, ○○○의 경우는 ○○○의 의견과 의결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임. 이것조차 사실은 표결 대상임
- ○○○ 평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상정에 대해 이미 합의를 본 상황에서는 일단 상정을 진행해야 함. 단, 상정된 이후에 이 사안을 재상정을 해야 함. 조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할 수 있지만 일단 동의, 비동의, 조건부 동의 중에 표결을 하는 것은 상정이 되었고 통과가 되었으므로 이견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함
- 의장 : 오늘 안건은 상정이 되었음
- ○○○ 평의원 :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대해 논의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의견은 추후에 제안을 해서 이 사항을 논의해 달라고 올려야 할 것임. 일단은 동의, 비동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표결을 하셔야 함
- 의장 : 동의와 비동의를 먼저 정하시고 동의가 된다가 하면 다시 조건부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다수가 되면 다시 조건부의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평의원님께서 조건부 동의에는 동의

하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면 오늘 표결에서 조건부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는 반대를 하시거나 평의원님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설득하실 수가 있음. 그런 절차로 진행하겠음.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시면 오늘 총장님이 요청하신 통합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은 것에 대해 동의와 비동의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음

- (평의원들 표결)
- 의장 : 자연캠퍼스도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람
- (의장과 간사 개표)
- 의장 : 집계가 되었으므로 말씀드리겠음. 동의에 찬성하신 분이 10분, 동의에 반대하신 분이 1분이므로 동의하는 것으로 안이 통과되었음. 다음은 동의를 조건부 동의로 갈 것인지 조건을 붙인다면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겠음. 이미 네 분은 조건부 동의에 동의를 하셨으며 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조건부 동의에는 의견일치를 보이셨음
- ○○○ 평의원 : 의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동의함. 그래서 조건부에 별지로 하는 형태, 즉 성명 형태로 하는 방식에 동의함
- ○○○ 평의원 : 저는 ○○○ 평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이왕 동의하는 거면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가장 심플하게 조건을 달고 그 다음에 별지의 형식을 통해서 디테일한 의견을 넣는 조건부 동의에 동의함
- 의장 :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 평의원님 제안하셨던 안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음. ‘명지대학교 평의원회는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후 통합 진행 시 좀 더 나은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붙이는 것임
- ○○○ 평의원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그냥 동의이고, 두 번째는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동의임. 세 번째는 동의지만 별개로 의사소통을 잘 수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넣는 것임
- ○○○ 평의원 : ○○○ 평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음. 다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음.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동의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2줄만 넣자는 것임. 서명 문서를 작성할 때도 동의합니까라고만 작성하지는 않으니 거기에 좀 더 나은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넣는 식으로만 하시면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깔끔한 안인 것 같음
- ○○○ 평의원 : 듣고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제안임. 제가 세 번째 제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음. 1번은 깔끔한 동의, 2번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음
- 의장 : 지금 세가지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평의원 :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동의, 두 번째는 간곡한 동의, 세 번

째는 동의하였으나 별지를 붙이는 것임

- 의장 : 두 번째 간곡한 동의는 별지를 붙이는 것인지 질문함
- ○○○ 평의원 : 지금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동의,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였으나 의사소통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넣는 조건부 동의, 마지막은 동의를 하고 또 다른 의견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동의를 하였으나'라고 별지를 붙이는 것임. ○○○ 평의원님 말씀은 차라리 깔끔하게 다른 조건이 없는 것처럼 동의한다고 쓰는 것이 어떨까를 말씀하신 것 같음
- ○○○ 평의원 :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함.
- 의장 : 그렇다면 저도 안을 내겠음. 저는 조건부 동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증가 요인 발생 시 철학과 및 바둑학과의 폐과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할 것은 조건으로 하는 것을 안으로 제안함. 지금까지 인문교협회장으로 동의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 이유는 두 과 때문임. 의사소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님. 교수협회 회장으로 인문캠퍼스의 철학과 자연캠퍼스의 바둑학과의 마음에 걸림. 그래서 조건부에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폐과 철회 검토를 명시하는 내용을 저는 상정함
- ○○○ 평의원 : 의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옳다고 생각함. ○○○의 설명도 듣고 그 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학교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독단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서를 달 때 치열하게 해야된다고는 봄. ○○○ 평의원님께서 아까 책임자 처벌을 말씀하셨을 때도 제 마음 속으로는 학교의 소통 방식에 대해 처벌을 해야한다고 동의는 하였음. 그러나 만약에 강한 어조로 정부 심사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그래서 강한 논조의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비동의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장님의 말씀도 존중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이것들을 별지화해서 달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 의장 : 저는 또 별개의 안을 제출해서 아까 세가지의 안 무조건적인 동의, 간곡한 동의, 별지 동의와 제가 말씀드린 한 장 안에 동의와 정원 증원 발생 시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폐과 철회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4번째안을 제의를 했음. 평의원님들께서 다른 안을 제출하실 분이 계신지 확인함
- (평의원들 다른 안을 제안하지 않음)
- 의장 :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음. 4가지 안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고 계신지 질문함
- 간사 : 정리하면 1번은 그냥 동의. 2번은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이나 단서 조항을 간단하게 하고 별지로 가는 조건부 동의. 3번은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이 없는 동의와 별지로 조건을 붙이는 안. 4번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조건부에 강력한 문구를 확실하게 넣는 조건부 동의. 이렇게 4가지 안임
- 의장 : 이 4가지 안에서 평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안을 투표하시고, 어떤 하나의 안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 안을 채택

하는 것으로 하겠음.

- 의장 : 하나의 안이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2개의 안을 재투표로 붙이는 것으로 하겠음
- (평의원들 동의함)
- (평의원들 표결)
- (의장과 간사 개표 및 집계)
- 의장 : 집계를 해서 발표를 드리겠음. 1번 0표, 2번 6표, 3번 1표, 4번 3표임. 총 11분 중에 과반이 6명이기 때문에 2번안이 과반수를 넘겼음. 2번안이 결정이 되었고, 2번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 평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문장이나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함
- ○○○ 평의원 : 아까 ○○○과 논의를 하면서 저와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으로 결국 의사소통을 개선하겠다고 표현을 하셨음. 포괄적으로 그 정도로 해서 간사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의장 : 그것은 조금 곤란함. 간사님께서서는 전체적인 내용 관련해서 관여를 하시면 안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 문구를 여기서 작성을 하거나 또는 ○○○ 평의원님 또는 다른 분들과 함께 문구 작성을 이임하는 방법이 있음
- ○○○ 평의원 : 문구가 엄청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음. 학교 측에서 만든 동의서 초안이 있는데 그것을 평의원님들께 공유한 후 이 자리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별지로 하기로 했으니 별지에 넣을 내용도 여기서 의결을 해야지 어느 한 사람에게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문구 수정이 계속 들어가서 간사와 평의원님들 모두가 힘들어 질 것 같음.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어졌으니 오늘 끝내는 것을 제안함
- 의장 : 다시 한 번 ○○○ 평의원님 제안 발언하실 때의 문구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학교 측의 초안을 출력해서 주시고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음
- 간사 : ○○○ 평의원님께 받은 초안을 찾아보겠음
- ○○○ 평의원 : 제가 지금 가지고 있음. 문구는 평이한 내용임
- 의장 : ○○○에서 통과시킨 안의 문구가 있지 않는지 질문함
- 간사 : 단서 조항을 수정해서 조금 더 추가하였음
- ○○○ 평의원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 체질 개선과 발전적인 특성화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명지대학교 직원노동조합원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수회는 소속 원의 의견을 모아 동의를 제시합니다.’ 대부분 대학이 이런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 초안을 하였음
- 의장 : 여기에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음
- ○○○ 평의원 : 그 사항에 향후 통합 추진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음

- ○○○○ 평의원 : ○○○○의 경우, 학교 측 안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시작했는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을 넣었음. 학교가 회생 사유로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회생을 추가했고, 뒤에 ‘동의하고 지지합니다’는 똑같음. 다만 ‘통합 과정에서 직원의 감원에는 반대합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 시에는 ○○○○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방적인 학사구조 개편에는 반대합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음. ○○○○ 평의원님 말씀대로 간곡하게 별지를 달아서 의사소통 부분이나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학교 측에 평의원회의 성명 형태의 등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음
- ○○○○ 평의원 : ○○○○ 평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지에 넣는 내용인지를 질문함
- ○○○○ 평의원 : 저는 지금 ○○○○의 동의서 내용을 읽어드린 것임. ○○○○은 단서로 달았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평의원회에서는 ○○○○ 평의원님 말씀대로 의사소통의 내용들을 달고 별지에 다른 내용들을 넣으면 어떨것냐고 제안을 드림
- ○○○○ 평의원 : 그게 좋을 것 같음
- ○○○○ 평의원 : 동의함
- 의장 : 지금 ○○○○ 평의원님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통합 비용의 문제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넣으려고 하면 복잡할 수도 있음. 가급적 오늘 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움
- ○○○○ 평의원 : 별지에 넣을 사항은 ‘다만’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1호 사항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통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 평의원님 말씀하신 처벌하라는 내용을 넣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음. 세 번째 사항은 비용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제시하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음
- 의장 : 아까 ○○○○ 평의원님 말씀하신 처벌의 문제는 사실 엄밀히 보면 법인에 요청을 해야하는 이슈여서 ○○○○ 평의원님의 의도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오늘 안건의 별지에 넣어야 될 성격인가는 의문이 듦. 동의서가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인데 그 안에 우리 내부의 처벌 문제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 평의원 : 별지는 교육부에는 제출되지 않음.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임. 평의원회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제안드리는 사항은 제안한다는 것임
- 의장 : 평의원님들 다 이해하신 것인지 확인함. 일단 오늘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우선 폐과 관련해서 증원이 되면 폐과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의 내용과 두 번째 내용으로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있어야 할 것임. 세 번째로 통합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떤 문구가 좋을지 의견을 구함
- ○○○○ 평의원 : 비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의장 : 통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통합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표현들도 있을 것 같음.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 비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평의원 : 통합 비용에 대한 것은 ○○○ 평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움. 통합 비용의 재원 마련이나 대책 등에 대해 나와있는 것이 없음.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 것임. 통합 비용 자체가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에게 전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의장 : 통합 비용의 마련과 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음
- ○○○ 평의원 : 소통과정이나 통합 비용은 투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을 하나로 합쳐서 포괄적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음.
- 의장 : 통합은 ‘진행과정 또는 집행과정(통합비용 포함)’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봄
- ○○○ 평의원 :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통 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통합 추진 비용의 문제에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넣는 것이 좋겠음
- 의장 : ○○○ 평의원님 그렇다면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평의원 : 의장님께서 별지의 1번 의견을 작성하고 ○○○ 평의원님이 쓰시는 것에 동의함. 위임을 하고 물러나도 되는지 질문함
- 의장 : 일단 조건부 동의안을 발의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 평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문구 자체를 일임하는 방법까지 제안을 드렸는데, 문구는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큰 이견이 발생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음. 꼭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평의원 : 마지막으로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바둑학과나 철학과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그 부분을 별지에 담아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나머지 통합 비용과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다 위임을 하겠음. (이석함)
- ○○○ 평의원 : 첫 번째 동의를 하고 조건이 붙는 건 다만 의사소통에 노력해달라이며 나머지는 별지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평의원 : 맞음
- ○○○ 평의원 : 확인 감사함 (이석함)
- ○○○ 평의원 : 앞장 동의 내용만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음
- ○○○ 평의원 : ‘다만, 향후 통합 추진 시 의사소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 정도만 하는 것을 제안함
- ○○○ 평의원 : 의사소통보다는 보다 강력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현재 평의원회에서 2차에 걸친 회의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공청회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음. 계속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봄

- ○○○ 평의원 : 그렇다면 ‘다만 향후 통합 추진시 의사소통의 개선과 공정한 참여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함
- (평의원들 동의함)
- ○○○ 평의원 : ○○○ 동의안과 같이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부분에 ‘명지학원의 회생과’를 넣으시는 것을 제안함
- ○○○ 평의원 : 그렇게 넣으면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해야 할 것임
- ○○○ 평의원 : 저의 제안일 뿐임
- 의장 : 문구 들어가는 것에 더 의견이 있는지 확인함. 회생 법원일과 관련해서 추후에 또 법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서가 요청될 것임. 명지학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기회에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음
- ○○○ 평의원 :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함
- 의장 : 그렇다면 표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임. 별지의 내용은 향후 정원 증원 가능성 발생했을 때 철학과와 바독학과의 폐과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권고한다는 내용, 두 번째로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과 의견 수렴(통합비용 관련 내용)이라고 기재를 해서 ○○○ 평의원님께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하시는 것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간사 :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회람을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음
- 의장 :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의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있음.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대로 문구가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큰 의견이 없으면 회의록 전체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도록 하겠음
- 간사 : 동의서 내용도 회람하도록 하겠음
- 의장 : 오늘 회의도 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음. 명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고생해 주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음.

2023. 02. 02.

작 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의 대학간 통합 동의(지지)서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학간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체질 개선과 발전적인 특성화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는 평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동의(지지)합니다.

다만, 향후 통합 추진시 의사소통과 공정한 참여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명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인)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의 대학간 통합 동의(지지)서의 별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대학 간 통합을 추진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는 2023년 2월 2일 2022학년도 14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평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동의(지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통합 추진시 의사 결정과 공정한 참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아래의 사항을 권고합니다.

1.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과정에서 정원 증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폐과 철회를 위해 정원
증가분을 최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함
2. 통폐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비용,
진행상황을 포함한 관련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함

2023년 02월 02일

명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 일동